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열왕기하 25:27-30  
2025년 11월 23일 오전 11시

## 감사가 불러온 회복의 은혜

<주여 도우소서 >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시야 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유다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과 왕궁은 불탔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까지 끌려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야진은 바로 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간 왕입니다. 여호야진은 열여덟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무려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55세의 여호야진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왕의 식탁에 앉으며, 종신토록 공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회복을 불러왔을까요?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 갔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대하 36:5-6). 여호야김이 쇠사슬로 결박된 이유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왕하 24:1).

## 1. 절망 속에 갇힌 여호야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왕하 24:15). 여호야긴 왕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왕하 24:16). 예루살렘에는 천민만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4:14).

그래도 아직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속부 맷다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왕하 24:17).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지 않고 형 여호야김을 본받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왕하 24:18-19). 또한 여호야김처럼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왕하 24:20).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제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왕하 25:1). 바벨론 군대는 오랜 노력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결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마 길로 가더니”(4 절).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야음을 틈타 모든 군사와 함께 성을 탈출하였습니다. 허나 멀리 못가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6 절).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히고 놋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 갔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7 절).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파멸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9 절). 크고 화려했던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주택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성벽을 헐어 버렸습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10 절). 이리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 성읍은 잿더미와 잿더미만 남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 중에 남아 있던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 갔습니다.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11 절). 이번에도 천민은 남겨 두었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12 절).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반의 손자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관할하게 하였더라”(22 절).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 준 인물입니다. 사반은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지파 왕족 중에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 총독을 세움으로 다윗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 2. 회복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삼하 7:16).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십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진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왕에 월므로 닉이 즉위한 원년 십이월 그 달 이십칠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진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왕하 25:27).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손자 여호야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호야진은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야진 왕은 죄수의 의복을 벗고 다시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29절). 왕복을 입고 바벨론의 왕과 한상에서 먹었습니다. 여호야진은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가장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28절). 또한 여호야진 왕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날마다 일평생 공급받았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30절). 여호야진 개인에게 임한 회복은 단지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여호야진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 민족적 회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비록 여호야진 왕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었지만, 여호야진의 손자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학 1:1).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비록 스룹바벨이 세운 제 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작고 불품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건된 성전에 영광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 2:9).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다윗과 같이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밀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밀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입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학 2:23).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신 목적은 영화롭고 평화로운 성전의 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회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진이 죄수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회복된 이유는 단순히 바벨론에 새 왕이 등극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전승에 따르면, 여호야진 왕은 긴 옥살이를 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여호야진의 겸손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불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헌데 여러분, 겸손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겸손해지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며, 그 은혜는 결국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의 시작은 다름아닌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회복되는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

감사가 불러온 회복의 은혜(왕하 25:27-30)

## The Grace of Restoration Brought by Thanksgiving (2 Kings 25:27–30)

**Rev. Junghoon Park**

Wylie Korean Methodist Church – Sunday Worship

November 23, 2025, 11:00 AM

---

In the history of Israel, King Josiah was the last king who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God granted Josiah a special grace so that he would not see the tragedy of Judah's destruction. Instead, he was allowed to rest peacefully in the tombs of his ancestors. But everything changed after Josiah. His sons and grandsons turned away from God and pursued idols, provoking the Lord's wrath. The walls of Jerusalem were torn down, the temple and palace were burned, and God's people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Today's passage focuses on King Jehoiachin, who lived during this dark period. At the young age of eighteen, Jehoiachin was taken to Babylon, where he spent thirty-seven years in prison. At the hopeless age of fifty-five, God poured out His grace of restoration upon him. He took off the garments of a prisoner, sat at the king's table, and received provisions for the rest of his life.

What brought about such restoration?

---

### **1. Jehoiachin Imprisoned in Hopelessness**

After Josiah's death, his son Jehoahaz became king but was dethroned within three months and taken to Egypt. Another son of Josiah, Jehoiakim, became king after him, but he too was taken away in chains to Babylon.

"Jehoiakim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eleven years.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ttacked him and bound him with bronze shackles to take him to Babylon." (2 Chr 36:5–6)

Jehoiakim was chained and taken away because he rebelled against Nebuchadnezzar.

“During Jehoiakim’s reign,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invaded the land, and Jehoiakim became his vassal for three years. But then he turned against Nebuchadnezzar.” (2 Kgs 24:1)

Nebuchadnezzar not only captured Jehoiakim’s son Jehoiachin, Josiah’s grandson, but also carried away the royal family, officials, soldiers, craftsmen, and most of the population of Jerusalem. Only the poorest remained.

Although Babylon did not yet destroy Judah, Nebuchadnezzar installed Zedekiah—another son of Josiah—as king. But Zedekiah followed the evil ways of Jehoiakim rather than the godly example of his father Josiah. And he too rebelled against Babylon.

Finally, the Babylonian army laid siege to Jerusalem, broke through its walls, and captured Zedekiah. His sons were killed before his eyes, then his eyes were put out, and he was taken to Babylon in chains. Jerusalem and the great temple were burned, its walls torn down, and the city left in ruins. The remaining people were taken into captivity, and only the poorest were left to tend vineyards and fields. Gedaliah, a descendant of Shaphan, was appointed governor—but not from the tribe of Judah, signaling the complete collapse of the Davidic line.

## 2. Where Does the Grace of Restoration Begin?

Yet God did not forget His covenant with David:

“Your house and your kingdom will endure forever before me; your throne will be established forever.” (2 Sam 7:16)

So, God began restoring the Davidic line.

“In the thirty-seventh year of the exile of Jehoiachin king of Judah, in the year Awil-merodach became king of Babylon, he released Jehoiachin from prison on the twenty-seventh day of the twelfth month.” (2 Kgs 25:27)

God extended grace to Josiah's grandson Jehoiachin. While Zedekiah died blind and imprisoned, Jehoiachin was freed after thirty-seven years.

Jehoiachin removed his prison clothes and put on royal garments again.

"He put aside his prison clothes and for the rest of his life ate regularly at the king's table." (v. 29)

He was given the highest seat among the captive kings and received daily provisions for the rest of his life.

This restoration was not just personal. Through Jehoiachin's grandson Zerubbabel, God planted the seed of national restoration. Jehoiachin himself never returned to Jerusalem, but his grandson Zerubbabel did:

"In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to Zerubbabel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and to Joshua son of Jozadak, the high priest." (Hag 1:1)

Zerubbabel became governor, returned to Jerusalem, and rebuilt the temple. Although this second temple was smaller and less impressive than Solomon's temple, God promised that He would fill it with glory and peace:

"The glory of this present house will be greater than the glory of the former house,' says the LORD Almighty. 'And in this place, I will grant peace.'" (Hag 2:9)

God also called Zerubbabel "my servant," restoring the Davidic covenant: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Almighty, 'I will take you, my servant Zerubbabel son of Shealtiel... and I will make you like my signet ring, for I have chosen you.'" (Hag 2:23)

God is the God of restoration. He destroyed Solomon's temple—defiled by idolatry—not to end Israel, but to restore His glory among them. Likewise, God can restore our families and our church in even greater glory.

But why was Jehoiachin restored? Not simply because Babylon had a new king.

Jewish tradition says that during his long imprisonment, Jehoiachin repented and became humble. His humility drew God's restoring grace.

"But He gives us more grace. That is why Scripture says: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James 4:6)

Then where does humility begin?

It begins with thanksgiving.

When we give thanks, our hearts become humble. When we stop giving thanks, pride takes over. Thanksgiving lowers our hearts, humility invites God's grace, and that grace brings restoration to our families and our church.

Therefore, the beginning of restoration in our homes and church is **thanksgiving**.

May the Lord grant abundant grace so that, through thanksgiving, our families and our church may be restored in greater glory than before.

---